

임실군, 농촌테마공원 조성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농식품부 공모 선정 전국 최대규모... 2019년부터 3년간 100억 투입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100억원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 유일의 치즈를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도 농촌테마공원조성 신규 공모사업에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1차 현장평가에 이어 23일 2차 발표평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평가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등 1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은 50년

전통의 임실치즈테마를 소재로 임실 치즈마을과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중심부 160,427㎡의 부지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국비 48.5억원, 군비 51.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테마공원에는 임실요들마을, 지정환휴(休)공원, 레인보우쉼터, 초지 및 젓소사육체험목장 등이 조성되며 치즈문화지원과 거점시설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전국 유일의 농촌테마공원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임실군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과감한

시도가 한 몫 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농촌테마공원의 컨셉을 예상 못한 즐거움이 있고, 특별하고 창의적인 농촌공원, 공감의 공간 구성이라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접근했다.

농촌 시군의 유사한 체형 및 관광장소가 아닌 방문객들이 기억을 만들고,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구성이라는, 상상 속 공간, 만화 같은 장소, 외국적 정취, 친환경적 공간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농촌테마공원 만들겠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치즈마을 및 임실치즈팜랜드가 개별 시설, 프로그램의 연계를 모색하고, 기존 임실팜랜드와 차별화된 정원 및 경관중심의 농촌공원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을 통해 치즈마을과, 인근마을, 임실치즈팜랜드 간의 거리를 허물고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앞으로 조성될 농촌테마공원은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숙성치즈나 과자를 만들고 지정된 날짜에 수령해가는 각종 체험공방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알프스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스위스식 정통 가옥 및 정원이 조성되는 임실요들마을과 초지 및 젓소사육 체험목장 등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촌테마공원 조감도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출산장려금' →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남원시가 그동안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먼저 '출산'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기존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게 특징이다.

또한 시에서는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주기별로

다양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임신 주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임신 전에는 (예비)부부에게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전통의약적인 방식의 한방난임치료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임신중에는 임신부 앰블럼과 주차증 발급, 임신제?절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시 물론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 시민증' 발급, '탄생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지방선거 이후에는 관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등을 활용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임신육아 캠프"운영과 도심공원 유희지에 "결혼·출생 기념 나무심기", 부부 직장인을 고려한 '토요 부부 출산교실' 등 다양한 시책도 계획 중에 있다.

최태성 보건소장은 "우리시는 이미 2018년 신생아부터 대폭 상향하여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의 축하금을 분할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재미있는 어린이날행사 풍성

5일 일품공원서 31개 프로그램 다채롭게 진행

순창군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31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 어린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은 '순창이라는 보자기! 꿈을 담은 어린이!'라는 슬로건 아래 5일 오전 11시부터 일품공원 야외 무대에서 31개의 다양한 공연 및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순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창군자원봉사센터, 119안전센터, 순창경찰서, JCI 순창청년회의소 등이 함께 참여해 만든다.

먼저 카타리 아저씨 풍선아트 공연, 청소년 댄스공연, 트램폴린 공연, 인계초등학교 밴드공연, 아동극, 합기도 시범단 공연 등 다양한 특별공연과 축하공연이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 잡는다.

또 네일아트, 풍선아트, 상상충만 타로여행, 포토 & 스마일 플로라이드 사진찍기, 예코백 만들기, 꽃사탕만들기, 머리핀 만들기, 위기탈출 넘버 원, 전래놀이, 다문화의상 전통놀이체험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풍성하게 열린다.

먹거리도 풍성하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프렌치토스트만들기, 빵스프링만들기, 흔들어김밥체험, 솜사탕, 팝콘, 아이스티, 스무디 만들기, 컵라면 끓이기, 맛있는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과자꾸러미 나눔행사가 진행돼 아이들에게 재미와 맛을 동시에 선물해줄 계획이다.

'가족동요부르기특별대회'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청소년문화의집 전화 652-2301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에어바운스와 퍼너버블을 이용한 기구놀이 체험도 진행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 주관 관계자는 "순창의 어린이들이 도시에 가지 않고도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많은 가족들이 행사장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험행사 등은 당일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청년 귀농귀촌 유치 구슬땀

순창군이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청년층 귀농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홍보행사로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연합뉴스가 주관하고 농림식품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순창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협의회가 함께 참여해 청년 귀농인력지 순창을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순창군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귀농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연합뉴스 사장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도시 청년의 귀농창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귀농단체들이 참여해 지자체 정책 설명, 상담, 채용설명 등 귀농귀촌의 범국민적 확산에 노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농기계작업단 큰 호응

임실군(군수 심 민)은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운반차량이 없는 소규모 고령·영세농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임실군의 2018년도 중점시책인 "맞춤형 효신포지"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작업단은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0.5ha 이하 소규모 경작을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기계 전담인력이 찾아가서 경운과 두둑, 비닐씨우기 등 발작물 위주로 농기계 작업 일괄 처리로 농가의 효노릇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신기술 지적재조사 실험지구 선정

행정지구 대상 kick-off 회의 및 현장 시연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신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에 2018년 행정지구(운봉읍 행정리 28번지 일원 260필지, 89천㎡)가 선정되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드론, 사물인터넷(IoT), 위성측량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자료는 일필지 조사와 경계결정 등에 활용되어 정확하고 스마트한 지적구축을 유도한다.

사업추진단은 27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험사업에 대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했다.

또,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운봉읍 행정리 행정마을에서 드론 및 위성측량 등의 시연을 통해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양원철 민원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사물인터넷(IoT), 위성 등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는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고 경계결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